

# “수출, 국민의 일자리 원천… 5대 수출대국 위해 힘 모아야”

**尹 대통령, 수출 전략회의 주제  
“수출증진 위해 정부의 지원 필요  
앞으로 전략·문제점 직접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증진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수출 증진에 대한 전략과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에서 민·관이 참여한 제1차 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과 직간접으로 전부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이야말로 국민들의 일자리 원천”이라며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지만,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없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어 “과거에는 경제 성장과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동집약적인 부분부터 수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최첨단 기술 집약적인 산업 분야의 수출을 이끌어 가야 한다”며 “오늘의 한국 경제를 만들어 낸 것은 결국 수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제가 직접 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

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순방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한 성과와 소회를 언급하며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한국 원전과 방산에 대한 관심과 논의,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협력 요

청도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중동 산유국들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사우디를 비롯한 정상 외교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수출, 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수출 관계 기관에서 민관을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주요 수출지역별로 특화 전략들을 세워 점검해 나가고,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내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전략적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용의주도하게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 수출 증진을 위한 ‘팀코리아’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합심·단결해 수출 증진에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서도 정쟁을 멈추고 국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초당적 협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서울시, 잠실·서울역·마곡에 ‘3대 마이스 거점’ 만든다

**‘서울 마이스 중기발전계획’ 추진  
2030년 마이스 인프라 23만㎡로  
E-스포츠 등으로 범위 확대·유치  
내년부터 서울페스타 매년 5월 개최**

서울시는 잠실·서울역·마곡에 ‘3대 마이스(MICE·기업 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회) 거점’을 만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서울 마이스 중기 발전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추진한다.

2030년까지 민간 개발사업을 통해 잠실운동장 일대, 서울역 북부역세권, 마곡에 전시컨벤션 시설이 대대적으로 확충돼 서울의 마이스 인프라가 기존 6만5000㎡에서 23만㎡로 약 3.5배로 늘어난다.



2021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SMA) 연례회의. /서울시

이와 연계해 시는 서울 서남권(마곡), 도심권(서울역·남산·광화문 일대), 동남권(잠실~코엑스) 3개 거점별 ‘마이스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쇼핑·문화·교통·관광 등 즐길 거리와 편의 시설을 집약한다. 마이스 행사를 위해

시를 찾은 참가자들이 서울에서 다양한 경험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국제회의, 박람회 등 국한됐던 마이스의 범위를 E-스포츠 대회 같은 국제

적 이벤트로 확대해 서울에 유치한다. 지난 8월 세계 최대 전기차 경주대회인 ‘포뮬러-E’와 연계해 진행했던 ‘서울페스타’를 내년부터 매년 5월 개최를 정례화하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이벤트의 추가 유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여의도(금융), 양재(AI), 동대문(뷰티) 등 서울의 10대 산업거점과 연계한 마이스 유치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시는 뷰티, K컬처 등 서울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의 마이스 행사를 기획해 서울 전역과 온라인 가상현실 공간에서 동시에 개최하고 나아가 NFT(디지털 증서) 결제까지 이어지는 하이브리드 마이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마이스 산업 생태계 조성 과 미래 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마이스 기업 입주공간을 조성하고, 기업 포상제도를 신설

한다. 신규부터 관리자까지 경력 주기별 마이스 교육과 강의가 상시 열리는 ‘서울 마이스 캠퍼스’도 만든다.

마이스 산업은 인적 네트워크가 핵심 자산인 만큼, 국내에서는 300개 이상의 마이스 업체로 구성된 ‘서울마이스 얼라이언스(SMA)’를 활성화하고, 국외로는 뉴욕·라스베이거스·싱가포르 등 주요 도시의 전문 에이전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대면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마이스 산업은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과정으로의 진화를 통해 한층 도약해 2021년 서울은 세계 2위의 국제회의 도시로 선정됐다”며 “이번 중기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마이스가 지역 혁신과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이 가진 마이스 도시로서의 국제적인 위상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0

## LG화학, 사장에 ‘재경 전문가’ 차동석

2023년 임원 21명 승진인사 단행

LG화학이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최고위기관리책임자(CRO)를 맡고 있는 차동석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2023년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23일 LG화학은 이사회를 열고 ▲사장 승진 1명 ▲부사장 승진 1명 ▲전무 승진 6명 ▲상무 신규선임 12명 및 수석 연구위원 승진 1명 등 총 21명의 임원 승진인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차동석 사장(사진)은 회계·금융·세무·경영진단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재경 전문가로, 2019년 9월 CFO로 부임해 다양한 사업 인수·합병·분할을 적극 지원하고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재무건전성 등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공고하게 다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양극재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이항목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현재 양극재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이항목 전무가 탁월한 성과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항목 부사장은 KAIST 화학공학 박사 출신의 2차전지 및 전지소재 전문가로, 2017년 1월 양극재사업부장으로 부임하여 기술 역량 강화, 생산성 확보 등을 통해 양극재 사업을 크게



성장시킨 점을 인정받아 승진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철저한 사업성과 기반의 승진인사,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조직 역량 제고,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조직 고도화,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한 마케팅 역량 강화 등이 특징”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톱 과학기업’ 도약을 위한 근본적인 사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디스플레이도 이날 이사회를 통해 정호영 사장을 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공식 임원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호텔신라, 럭셔리 화장품 사업에 도전장

뷰티 브랜드 ‘시효’ 론칭

이부진 대표가 이끄는 호텔신라가 화장품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6월 로레알, 앵커에퀴티파트너스와 함께 합작법인 ‘로시안(LOSHIAN)’을 설립했다. 이후 제품 개발 과정을 거쳐 럭셔리 뷰티 브랜드 ‘시효(SHIHYO)’를 지난 21일 처음 선보였다. 신라호텔이 뷰티 브랜드를 론칭한 것도, 로레알이 합작주자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시효는 각 계절의 적기에 수확된 24가지 자연 원료를 담고 있으며, 과학적 연구와 혁신을 통해 입증된 효능을 결합해 제품을 선보인다. 모든 제품에는 쌀뜨물과 인삼수를 24가지 자연 원료와 배합하여 만든 시효만의 특허 받은 핵심 성분인 ‘시효24(Shihyo24)’가 들어가 있다.

시효는 24가지의 자연 원료가 함유된 24개 앰플을 비롯해 클렌저, 에센스, 크림 등의 스킨케어 라인과 샴푸, 컨디셔너 등의 헤어케어 라인을 선보인다.

/이세경 기자 seilee@